

##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생선은 20마리를 한 묶음으로 하여 '두름'이라 하고, 바늘은 24개를 묶어 한 '쌈'이라고 합니다. 그럼 '꿰'는 어떤 물건에 쓰이며 몇 개를 묶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럿을 한 단위로 하는 말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박현정,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답** 국어에서 사물의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대부분이 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의존명사입니다. 수량 단위의 의존명사에는, '닭 한 마리, 소나무 두 그루' 등과 같이 개체의 낱말을 한 단위로 세는 것과, '조기 한 두름, 바늘 한 쌈'과 같이 한 묶음을 한 단위로 세는 것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꿰'는 '북어 스무 마리'를 나타내는 말로, '두름, 쌈'과 같이 일정 한 수의 묶음을 한 단위로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물의 수량을 묶음 단위로 세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금성판 국어대사전 참조)

① 가마 : 갈모나 썸지 따위의 100개. || 썸지 세 ~.

② 갓 : 말린 식료품 중, 굴비 따위의 열 마리, 고사리·고비 따위의 열 모숨. || 조

기 두 ~ / 고사리 한 ~.

- ③ 강다리 : 쪼갠 장작 100개비. || 장작 세 ~.
- ④ 거리 : 오이·가지 따위의 50개. || 가지 두 ~ / 오이 세 ~.
- ⑤ 고리 : 소주 열 사발. || 소주 한 ~만 갖다 주세요.
- ⑥ 권(卷) : 한지(韓紙) 20장. || 창호지 세 ~.
- ⑦ 꾸러미 : 달걀 10개. || 달걀 네 ~.
- ⑧ 다스(〈dozen〉) : 물품 12개. =타(打). || 연필 두 ~ / 양말 한 ~.
- ⑨ 동 : 떡 10장, 붓 10자루, 생강 10점, 무명·베 등의 50필, 백지 100권, 꽃감 100점, 조기·비웃 등의 2,000마리 등의 묶음을 세는 말.
- ⑩ 두름 : ① 물고기를 10마리씩 두 줄로 엮은 20마리. || 굴비 두 ~. ② 산나물 따위를 열 모습 정도로 엮은 것. || 고사리 한 ~.
- ⑪ 매 : 젓가락 한 쌍. || 젓가락 한 ~.
- ⑫ 못 : 생선 열 마리나 미역 열 장. || 조기 한 ~.
- ⑬ 새 :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날실 마흔 올을 한 새로 칩. 승(升). || 석 ~ 모시 / 닷 ~ 베.
- ⑭ 손 : 물건을 한 차례 집는 수량. 조기·통배추 따위는 크고 작은 것을 끼어 들 썩을, 미나리·파 따위는 한 줍씩을 한 손이라 함. || 고등어 한 ~.
- ⑮ 쌈 : 바늘 24개. || 바늘 한 ~.
- ⑯ 연(連) : 양전지(洋全紙) 500장. || 양지 다섯 ~.
- ⑰ 집 : 채소·과실 따위의 100개. || 마늘 한 ~.
- ⑱ 죽 : 옷·그릇 따위의 열 벌. || 접시 한 ~ / 버선 두 ~.
- ⑲ 채 : 가공하지 않은 인삼 100근.
- ⑳ 축 : 말린 오징어 20마리. || 오징어 다섯 ~.
- ㉑ 켈레 : 신·버선·방망이 따위의 두 짝. 족(足). || 고무신 한 ~ / 양말 두 ~ / 버선 세 ~.

㉔ **패**: 북어 20마리.

㉕ **톳**: 김 30장 또는 100장 묶음. || 김 세 ~. (정호성)

**목록** 요즘에 ‘감사하다’란 말이 이 땅에서 너무도 활개를 치고 우리 나라 말의 ‘고맙다’, ‘고마워하다’를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랑, 나라 사랑하는 뜻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고맙다’, ‘고마워하다’라는 우리의 정다운 토박이말로 쓰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최햇빛, 경주시 인왕동 258)

**답** ‘감사하다’를 ‘고맙다’, ‘고마워하다’로 바꿔 쓰자는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감사하다’와 ‘고맙다’, ‘고마워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1) 감사하다 **【형용사, 동사】** 고마운 마음이 있다.
- (2) 고맙다 **【형용사】** ①(남이 베푼 은혜·도움·친절 등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은혜로움이나 따뜻한 정을 느껴 기쁘다. ②(은혜·도움·친절 등을 베푼 대상이) 은혜로움이나 따뜻한 정을 마음 속에 절실히 느끼게 하는 데가 있다.
- (3) 고마워하다 **【동사】** 고맙게 여기다.

나. 이어 구체적인 예를 들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2) 가뭄 때문에 올해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이 점을 우선 감사하게(고맙게) 생각합니다.(1995. 4. 27. 서울신문 2면)
- (3) 학교 건축 현장 견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7월 16일~8월 6일 사이에 오버스로 서울에서 학교 건축 현장까지 안내할 것이니 7월 4일~7월 15일 사이에 엽서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겠습니다)(1995. 7. 5. 중앙일보 1면. 광고)
- (4) 레만에 대한 칭찬과 고맙다는(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1997. 1. 27. 동아일보 26면)
- (5) 결혼 13년 동안 묵묵히 힘이 되어 준 아내가 늘 고맙다며(감사하다며) 아껴둔 시 한 편을 읽는다.(1997. 1. 28. 강원도민일보 14면. 독서출판)
- (6) 얼마나 고향이 고마운지(감사한지) 모르겠다. 좋은 고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1995. 4. 19. 세계일보 2면)

위의 예 (1)에서 (6)까지 쓰인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뜻을 그대로 지닌 채 서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7) 趙씨는 방학인데도 논문 준비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어 자신을 대신 해 챙겨주는 데 감사하고(고마워하고) 행복감도 만끽했다.(1995. 7. 5. 중앙일보 18면)
- (8)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마워하라)
- (9) 델리 시카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김 대통령이 미국 제2의 도시 시카고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마워한다)'면서 김 대통령에게 행운의

열쇠를 증명했다.(1995. 7. 1. 문화일보 15면)

- (10) 나의 알찬 여행과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 유진에게 깊이 감사하고(고마워하고), 배낭여행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떠나라고 말하고 싶다.(1994. 9. 14. 분당타임즈 11면)
- (11) 따뜻한 말 한 마디, 말없이 꼭 잡아준 손, 나중에 보내 준 위로의 편지나 도움의 될 만한 책 한 권에서 두고두고 힘을 얻었다고 고마워하는(감사하는) 사람들도 있다.(1995. 7. 10. 한국일보 5면)
- (12) 15만 톤의 쌀을 준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할(감사할) 저들이 아닌데도 벌써부터 대화 재개 등 해빙과 정상 회담 등을 기대하고 운위하는 것은 실로 성급하며 저들의 속셈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1995. 7. 1. 한국일보 3면. 사설)

위의 예 (7)부터 (12)까지는 ‘고맙다’가 아닌 ‘고마워하다’와 ‘감사하다’를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하다’는 ‘고맙다’ 및 ‘고마워하다’와 동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하다’와 ‘고맙다’의 관계만 보면 대체로 ‘감사하다’는 좀더 격식을 차리는 말투에 많이 쓰이고, ‘고맙다’는 친근한 비격식체 관계나 좀더 부드러운 말투에 더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다’를 기계적으로 무조건 ‘고맙다’로 대체하는 일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떤 틀에 맞추어 너무 경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에도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같은 뜻이라면 가능한 한 우리 고유어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람'이나 '즈믄'이 한자어 '강(江)'이나 '천(千)'에 밀려 그 자리를 내어 주듯, 쓰이지 않는 말은 결국 설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맙다', '고마워하다'와 같은 우리말 표현을 더욱 쓰려는 자세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희진)

**㉮** 표준어 규정이 1988년 1월에 고시되기 전에 우리 나라에 표준어 관련 규정이나 자료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에 이와 관련한 공표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법주,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에도 방언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을 느끼고 뜻이 잘 통하는 공통어나 표준어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덕무(李德懋)의 '한훤당섭필'(寒暄堂涉筆) 신라 방언조(新羅方言條)에도 이러한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언해물(諺解物)을 비롯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표준어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표준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보이지 않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4월에 공포한 '보통 학교용 언문 철자법'에서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함"이라고 한 것이 표준어 규정에 대한 명문(明文)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표준어 사정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급이 없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표준어를 본격적으로 사정한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 작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 학회에서 표준어 6,231, 비표준어 3,082, 약어 134, 한자어 100, 총계 9,547어를 사정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은 우리 손으로 우리 표준어를 처음으로 사정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개화 이후의 경성어를 바탕으로 약 6만 어를 실은 ‘조선어사전’(1920)이 일제하 표준 조선어의 기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기준이 된 ‘큰사전’ 여섯 권은 표준어 140,464, 기타 23,661, 합계 164,125어가 실린 것으로 우리의 표준어 사전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큰사전’ 발간 이전에 나온 문세영(文世榮)의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1939)과 ‘큰사전’ 발간 중에 나온 이윤재(李允宰)의 ‘표준 조선말 사전’(김병제 엮음, 1947), 그리고 ‘큰사전’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중사전’(1958) 등이 표준어 사전으로 이바지했습니다.

이후 우리 표준어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과 ‘큰사전’을 준거로 삼아 왔으나 언어의 변전(變轉)과 더불어, 규정상의 미비가 드러나고, 현대 국어에서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려운 예가 보이며, 국어 사전 간에 표준어 처리가 일치하지 않는 예가 있을 뿐 아니라, 표준 발음법의 미비로 특히 국어 교육상 많은 지장을 주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각계 여론도 당시 표준어를 재검토하고 보완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이에 표준어와 한글 맞춤법을 비롯한 개정 사업을 1970년에 정부의 어문 정책의 당면 과제로 받아들여 이후 18년 동안 문교부→학술원→국어연구소를 거치면서 깊고 다듬어

1988년 1월에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보이는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0년에는 문화부가 국어 사전 ('새한글사전'[한글학회, 1986]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간에 일치하지 않는 고유어와,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 지어 놓은 단어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한 '표준어 모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표로 그간 상층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고유어에 대한 검토는 한 단락 지은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중에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검토해야 할 말들이 많을 뿐더러 신조어, 외래어 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들 말에 대한 심의·검토 작업을 통한 표준화 사업 역시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준화 작업을 어느 정도 추진한 후에는 이들을 국어 사전에 실어 보급하는 일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9년에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발간할 계획을 세워 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김희진)

**㉠** 거리의 간판이나 안내문 또는 서예 작품을 보면 'ㄺ'도 보이고 'ㄻ'도 보입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동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 국어가 변화함에 따라 국어를 문자로 표기하는 표기법도 변화하면서, 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의 글자 모양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



의 글자 모양은 그 시대의 필기 도구나 인쇄 도구의 재료 또는 예술적 감각 등의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신 ‘꺄’는 원래 ‘ㄴ’(ㄴ)자에 ‘ㄱ’(ㄱ)자를 합친 것으로, ‘훈민정음해례본’에는 ‘꺄’를 보입니다. 이것이 ‘동국정운’에서는 ‘꺄’를, ‘두시언해’,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육조법보단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소학언해’, ‘은중경언해’, ‘지장경언해’, ‘훈몽자회’ 등에는 ‘꺄’를 보입니다. 영정조조(英正祖朝)의 ‘윤음언해’에는 ‘꺄’를 보이는데 ‘이륜행실도 가례언해’처럼 ‘꺄, 꺄, 꺄’를 모두 보이는 예도 있습니다. 동인지 중 ‘폐허’는 ‘꺄’를 보이는데, ‘백조’는 받침이 없으면 ‘꺄’를, 받침이 있으면 ‘꺄’을 보입니다. 개화기의 문법서들도 ‘꺄, 꺄’로 갈려 있습니다.

이리하여 전적(典籍)에 따라 ‘꺄, 꺄, 꺄, 꺄’ 등 여러 모습으로 지금까지 쓰여 왔습니다. 우리 나라 동전이나 지폐에서 ‘원’자의 모음 표시가 ‘꺄’로 보이고 현판이나 현수막, 서예 작품 등에서 간혹 ‘꺄’가 쓰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꺄’와 ‘꺄’가 혼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각종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 ‘한글 글자본’(교과서 본문용 한글 글자본, 문화부, 1991), ‘한글 글자본 제정’(제목용 한글 글자본 및 옛한글 글자본, 문화체육부, 1993)에서는 ‘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같은 이중 모음의 글자에서 그 곁줄기가 모음자 ‘고’에 걸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꺄’ 또한 ‘꺄’의 곁가지를 모음자 ‘ㄴ’에 걸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체육부에서는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를 주관 연구 기관으로 하여, 한글 글자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자 표기에

혼란이 없도록 한글 글자본을 학계, 교육계, 출판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에 널리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희진)

**문답** '고살을' '밭을'은 [고사출] / [고사틀], [바출] / [바틀] 어느 쪽으로 발음해야 됩니까. 그것은 '밭이'를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까? (윤송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답** 표준 발음법 규정에서 받침의 발음은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제13항)고 하여 연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살을'은 [고사틀]로 발음합니다. 유사한 예로는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씨], 낮이[나지], 밭에[바테], 쫓아[쫓차], 꽃을[꼬출], 꽃아[꼬자],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음되는 받침은 앞에서 살펴본 [고사틀]처럼 본음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2항에서 규정한 'ㅎ의 탈락'이라든가 제17항에서 보이는 구개음화와 같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ㅎ의 탈락'의 경우는 ㅎ(ㅎ, ㅈ)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ㅎ을 발음하지 않는 것인데,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개음화의 경우는 두 번째 질문하신 '밭이'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개음화'라고 부르는 경우에 '밭이'를 [바티]가 아니라 [바치]로 발음하는데, 그것은 받침 'ㄷ, 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

는 경우에는, [스, 츠]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원칙 때문입니다(제17항). 같은 예로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단이 [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과 '밭이'는 같은 받침이라도 각각 [바틀], [바치]로 차이나게 발음하여야 합니다. (김옥순)

**문예** '유유상종 / 유류상종'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그리고 '열열히 / 열렬히', '낙낙장송 / 낙락장송' 은 어떻습니까?

(나힘찬, 경기도 고양시)

**답** 질문하신 한자어 '유유상종(類類相從)'은 유유(-상종)의 첩어적 성격을 지닌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맞춤법 제13항). '딱딱', '씩씩', '똑똑 똑똑', '연연불망(戀戀不忘)', '누누이(屢屢-)', '쌈쌈하다', '짹짹하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1항 붙임 1규정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를 적용하면 '연연(-불망), 유류(-상종), 누루(-이)'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여:년-][유유-][누: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관용을 따라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寥寥無聞), 요요(寥寥)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낙락장송, 열렬히'가 맞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낭랑하다,

냉랭하다, 녹록하다, 늪늪하다, 연년생, 역력하다, 적나라하다' 등이 있습니다. (김옥순)

**물음** '했대 / 했데'가 사용될 때 어느 것이 맞는지 자꾸 혼동됩니다. 어떤 표현이 맞춤법에 맞는 것입니까? (김영진, 서울시 송파구)

**답** 어미 '-대'와 '-데'는 그 용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대'는 '-다고 해'가 준 말로서 '-다고'는 어미 '-다'와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결합한 말입니다. 즉 화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판단을 인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시대." 같은 경우입니다. '-대' 앞에는 시제 관련 선어말어미 '-ㄴ/는-, -았/었-, -겠-'이 와서 '한대, 했대, 하겠대'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한다고 해, 했다고 해, 하겠다고 해'가 준 것들이므로 질문하신 '했대'는 '했다고 해'가 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는 '가까운 사람이나 약간 아랫사람에게 지난 일을 회상하여 말할 때나 물을 때 쓰는 종결어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 보니까 밥을 먹고 있데.", "철수가 학교에 언제 가데?" 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가 회상의 문장에 쓰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데'에 회상법 선어말어미 '-더-'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는 "우리집에는 무얼하러 왔데?", "보아하니 큰 인물이 되겠데."처럼 과거의 '-았/-었', 미래의 '-겠-'과 어울려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데'는 남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감탄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와 설명의 연결어미로 쓰이는 '-은데', '-ㄴ데', '-는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즉

‘-은데’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에 붙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이고 ‘-는데’는 ‘이다’ 또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에 붙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이며 ‘-는데’는 동사나 ‘있다’, ‘없다’의 어간 아래에 붙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로 사용됩니다.

위에서 말한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의 예는 “이거 도깨비에 홀린 것 같은데!” “대단한 기술인데!”,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이는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어미로 쓰일 때의 예는, “식구는 많은데, 굶을 수는 없다.”,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컵 주시겠습니까?”, “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가을날 이상한 새가 날아왔다.”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했대’는 ‘했다고 해’가 준 표현으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나 판단을 인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했데’는 ‘가까운 사람이나 약간 아랫사람에게 지난 일을 회상하여 말할 때나 물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김옥순)

가나다 전화는 (02) 771-9909입니다.